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혁신도시의 중심지역을 누리는 3,813세대만!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6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9월 17일 (음력 8월 18일) 수요일

■ 광역경제권 이대론 안된다 ㊥ 지역 현실 안맞는 사업 선정

첨단 인프라 필요한데 SOC 보강 위주 편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데다 지역균형발전도 고려되지 않아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도사업이 사회 간접자본(SOC) 보강에 편중돼 첨단산업 인프라 확보를 통해 낙후된 광주·전남의 발전을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3면〉

J프로젝트 등 성장 동력 떨어져

최근 정부가 선정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광주시·전남도, 전북도가 포함된 호남권 선도프로젝트는 대부분 SOC 및 계속사업에 불과하다. 이는 ▲새만금개발(새만금 개발,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 구축 등 5개 사업이다.

문제는 이같은 대형 사업이 지역의 SOC 수요와 산업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시 자체 판단에 따르면 도로,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 융·복합단지 조성 ▲광주 R&D 특구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5개 사업을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SOC위주로 편성하는 바람에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 끊임없이 국토개발 위주 SOC 확충 보다는 산업인프라의 확충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 않았다"며 "어차피 정부가 일방 추진할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지역 의견을 제출받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선정에는 권역내 상생발전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다. 전남도의 '미래 청사진'인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F1대회 개최가 선도사업에서 빠지고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이 호남권 사업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권역내 차별'이 현실화된 것이다. 사업 성격이 유사한 새만금 사업에 밀려 J프로젝트가 추진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특히 호남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이미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해온 국책사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특별법으로 자체 추진동력을 갖춘 사업이고 호남고속철도 완공 시기만 확정되지 않은 계속사업이다. 〈2면으로 계속〉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월街 충격' 금융시장 패닉

주가 90P 폭락·환율 50.9원 폭등

정부 긴급회의…전방위 대책 착수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월가 충격'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공황)' 상태에 빠졌다. 〈관련기사 6·11면〉

16일 국내 증시가 연중 최저치로 '곤두박질' 한 가운데 환율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는 등 '검은 화요일'이 연출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90.17포인트(6.10%) 하락한 1,387.75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6일(125.91포인트) 이후 역대 3번째 하락폭으로, 지수가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7.62포인트(8.06%) 떨어진 429.29로 마감,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주가 급락시 발동되는 사이드카가 걸려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등 미국발 악재의 '직격탄'을 맞았다.

외환시장도 '월가 충격'의 여파로 크게 요동쳤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50.90원 폭등한 1,1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 상승폭이 전 거래일 대비 50원을 넘어선 것은 1998년 8월6일(67.00원) 이후 10년1개월 만이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 불안이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6일 긴급회의를 갖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당장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합동실무대책반'을 꾸리는 등 금융시장의 심리적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망연자실 미국발 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1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자가 심각하게 시세판을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암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전남 연·근해어업 배 띄울수록 손해

기름값 폭등 … 어민 소득 작년 比 190% 줄어

면세유와 그물 등 어구(漁具)가격 인상으로 지역 어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올해 전남지역 연·근해 어업은 배를 띄울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16일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어가 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름 소비가 많은 대형 선망 등 근해어업은 올해 배 한 척당 3천433만8천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배 한 척당 3천837만3천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소득이 무려 190%나 줄어드는 셈이다.

연안어업 역시 한 척당 경영비가 911만3천 원에서 1천20만 원으로 11.8% 많아지면서 소득도 지난해 772만4천 원보다 14%가 감소한 664만2천 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지역 어가의 소득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유류비와 어구가격 등 배 한 척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경영비)이 1년 사이 5억7천994만원1천 원에서 6억5천265만1천 원으로 12.5%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을 비롯한 올해 전국 평균 어가 소득은 2천745만8천 원 수준에 불과, 지난해의 3천66만8천 원에 비해 11%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社告

'2008 광산업의 날' 행사

9월 19일 유공업체 표창 …체육대회도

광주의 차세대 주력산업인 광(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광산업의 날'이 올해로 4회째를 맞습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는 정부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오는 19일 광산구 첨단체육공원에서 '2008 광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광산업 관련업체 임직원과 가족·시민 등 2천여명이 참여하는 '광산업의 날' 1부 행사에서는 체육대회가 펼쳐지고, 2부에서는 광산업 발전 유공업체에 대한 표창과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축제 한마당이 마련됩니다.

'광산업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일 시 : 9월 19일(금) 오후 1시30분~오후 10시20분
- ■ 장 소 : 광주시 광산구 첨단체육공원
- ■ 주 최 : 광주일보사·한국광산업진흥회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
- ■ 후 원 :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기관·단체

光州日報社